

공인구 손에 붙는 장원준, 150km 빠른 공 맛본 방망이



이명도 기자의 여기는 오키나와 | 대표팀이 요미우리전서 얻은 것

장원준, 30이닝 퍼펙트 “공인구 느낌 곳”
“첫 경기, 공 본 것에 만족” 타선은 침묵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이 첫 연습경기를 치렀다. 일본 최고 명문 요미우리 에 패배했지만, 수확도 있었다. 한국대표팀은 19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 셀룰러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미우리와 연습경기서 0-4로 졌다. 산발 4안타에 그치며, 찬스 때마다 침묵했다. 반면 요미우리는 찬스를 잘 살리면서 8안타로 4득점에 성공했다.

●저음 접한 빠른 공, 멍찔했던 방망이

이날은 대표팀의 첫 실전이었다. 그동안 타자들은 배팅볼 투수가 던지는 공과 피칭머신의 공만 봤다. 18일에 라이브배팅을 진행했지만, 은퇴한 송진우 투수코치의 공이었다.

실제로 이날 요미우리에선 강속구 투수들이 대거 등판했다. 선발 마일스 미콜라스는 구속을 서서히 끌어올리더니, 2회부터 빠른 공 비율을 높여 손아섭과 박석민을 연거푸 삼진으로 잡아냈다. 서건창의 유격수 앞 내야안타와 양의지의 좌전안타, 김재호의 볼넷으로 2사 만루 찬스를 잡았으나, 이용규가 작구에 배트가 부러지며 투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6회 등판한 3번째 투수 아르키메데스 카미네로는 150km대 강속구를 뿌리며 김태균~손아섭~박석민을 삼진 2개 포함 삼자범퇴로 잡아냈다. 대표팀 합류 3일차인 이대호는 컨디션 조절 차 8회 대타로 한 타석을 소화했는데, 좌완 토네치아키 상대로 서서 3구 삼진을 당했다.

경기 후 김인식 감독은 “첫 경기였다. 겨울 동안 보지 못하던 공을 봤다. 타자들의 배트 타이

밍이 늦더라. 경기를 치르면서 점점 나아질 것이다. 훈련 때보다 빠른 공을 본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발 장원준 30이닝 퍼펙트, 차우찬은 아쉬움

마운드에선 선발 장원준이 30이닝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다. 투구수는 34개. 정규 라인업을 내세운 요미우리의 1~9번타자를 삼진 3개 포함 무안타로 막았다. 당초 2이닝 투구가 예정돼 있던 장원준은 2회까지 투구수가 22개에 불과해 3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장원준은 경기 후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았다. 훈련 때보다 공인구의 느낌도 더 좋은 것 같다. 오늘은 밸런스가 좋아 필리스포인트가 일정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 역시 “투수는 제구력 위주의 피칭이 돼야 한다. 장원준은 힘으로 던지지 않는다. 특 던지는데 변화가 있으니 일본 선수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칭찬했다.

현재 실전투구가 가능한 인원인 9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장원준 덕분에 이를 휴식 후 22일 코코마치전에 또 다시 나서야 하는 투수 중 장시환이 집을 떠났다. 2번째 투수 장시환은 당초 2이닝 투구가 예정돼 있었지만, 12개의 공으로 1이닝 2안타 1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뒤이어 등판한 차우찬은 2이닝 4안타 2실점으로 부진했다. 28개의 공을 던졌는데 공이 다소 높았다. 6회 1사 2:3루서 일본대표팀 멤버인 사카모토 하야토에게 2타점 적시 2루타를 맞은 데 대해 그는 “의식을 크게 한 건 아니다. 막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오랜만에 경기를 하니 공이 다소 높았다”며 아쉬워했다. 대표팀은 이후 원종현(1이닝 무실점)~박희수(0.2이닝 1실점)~심창민(1.1이닝 무실점)을 올려 예정된 등판일정을 소화했다.

오키나와(일본) | nirvana@donga.com



19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 셀룰러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대표팀과 요미우리의 연습경기에서 앞서 대표팀 선동열 투수코치가 일본 주니치 시절 감독이던 호시노 센이치 현 라쿠텐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표팀 김인식 감독과 요미우리 다카하시 요시노부 감독은 경기에서 앞서 기념품을 주고받았다. 이날 현장은 경기 전부터 한일 양국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왼쪽부터 시계방향).



로또 40억 당첨자! 1, 2, 3등 한번에...

—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5일만에 12억 당첨 화제!

— JTBC, MBN, 채널A 등 방송언론에 당첨금 전액기부 보도!



오정식 대표

누구나 한 번쯤 '내가 만약 로또 1등에 된다면..'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로 "꿈자리가 좋아서" "이번만큼은" 이라는 생각으로 로또를 구매해도 현실은 '땡' 운이 좋아도 5등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허탈감만 항상 느끼게 된다. 이제 수학적 접근방법으로 당첨확률을 높여 '로또 당첨은 운이 아니라 과학이다'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예측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꾸준히 로또 1등을 배출, 로또 마니아들에게 '온라인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로또 분석 전문 업체 '로또플레이' (대표번호:1666-6645)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로또플레이는 국내 최단기간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170회, 2등 836회, 3등은 26,118회를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영수증과 거래내역서까지 홈페이지 (LOTTOPLAY.C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최근엔 로또 정보업체 로또플레이의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705회 로또 1등 당첨자라고 밝힌 50대 여성이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 동시에 당첨된 인증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예측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

또플레이'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전문 업체다. 정모 씨(47세/여)는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하고 예상번호를 문자로 제공받은 지 5일 만에 로또 1등(12억 6천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고, 제 641회차에서는 인기 레이스 모델이 로또 2등에 당첨된 비결이 바로 예상번호를 제공해 준 '로또플레이'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로또플레이'는 골드회원으로 가입하

신 회원님들께 통계기반(26단계 필터링)으로 만들어진 1등 예측시스템을 통해 예상번호를 매주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 / 수당 변경가능)

한편 로또플레이는 실제 1등 배출 기념 최대 70% 할인 이벤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최대 70% 할인 가입비: 6개월 49,000원/1년 69,000원/3년 124,000원)

대표번호 1666-6645 전화 한통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회차	705	1등	2등	3등	4등	5등
다행번호	1767527760	3,987,206,532*1		1,472,653*4		
당첨금액		3,993,097,144		연동금액	2,708,376,814	
소 득 세		1,167,927,610		과세표준	3,993,092,144	
세금합계		1,284,720,330		지방소득세	116,792,720	
*과세기준: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33% 적용				실지금액	2,708,376,814	
				2016년 6월 7일		
				농협은행 공공금융부		

〈로또플레이 사진제공: 40억 1등당첨 영수증〉

회차	7073814	1등	2등	3등	4등	5등
다행번호	1,268,434,013*1					
당첨금액	1,268,434,013			연동금액	882,851.1	
소 득 세	350,529,900			과세표준	1,268,433.0	
세금합계	385,582,890			주 면 세	35,052.9	
				실지금액	882,851.1	
				2011년 3월		
				농협중앙회 개인고객부		

〈로또플레이 사진제공: 12억 1등당첨 영수증〉

연습경기 1만명 운집...긴장한 김인식 감독

“경기 많이 해도 오더 쓸 땐 여전히 긴장”
주니치 인연 호시노·선동열 재회 눈길

일본의 남쪽 섬, 오키나와는 매년 2월 야구팬들로 북적댄다. 일본 프로팀들의 스프링캠프가 진행되면서 본토에서 각 구단 팬들이 찾는 데다, 전지훈련을 오는 한국 팀도 많아 경계효과가 엄청난다.

●요미우리를 위한, 오키나와 최고의 구장

오키나와의 시가지 나하에 위치한 셀룰러스타디움은 일본 최고 명문, 요미우리를 위한 구장이다. 내야 좌석만 총 1만5000석, 외야 잔디석까지 입장할 경우 최대 3만명 수용이 가능하다. 2010년 프로경기를 개최할 정도로 시설은 최고다. 오키나와현은 총 68억엔의 공사비를 들여 셀룰러스타디움을 지었고, 공사비 중 70% 정도를 미군 주둔으로 인한 방위성 보조금에서 충당했다. 오키나와에 야구장이 많지만, 셀룰러스타디움은 당장 연고팀을 유치해도 될 정도다. 오키나와현은 최고 인기팀 요미우리를 유치하기 위해 거액을 투자했다. 평소 시민들과 아마추어 팀에 개방되지만, 2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요미우리의 2차 전후에 맞춰 일찌감치 문을 닫고 캠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요미우리는 오키나와에서 실전을 치른다. 한국과 일본의 프로팀이 상대가 되는데, 이번엔 2007년(베이징올림픽) 예선 대비 캠프 이후 10년 만에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린 한국대표팀과도 만났다.

●김인식 감독도 긴장한 요미우리전

19일 셀룰러스타디움은 개방된 구역이 꽤 들어찰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약 1만명의 팬들이 찾은 야구장은 아침부터 북적였다. 무료 입장이기에 좋은 자리를 잡고, 먼저 진행된 홈팀 요미우리의 훈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프로 경기라고 해도 될 만큼 경기장 밖에는 팬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준비됐다. 스크린을 통해 요미우리의 지난 시즌 경기 등 영상을 틀고, 각종 구단 용품과 기념품, 그리고 먹을거리까지 장사진을 이뤘다. 경기장 안에서는 셀룰러스타디움을 처음 찾은 김인식 감독의 감탄이 이어졌다. 김 감독은 “야구장이 정말 좋다. 정규경기가 열려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외야가 잔디석이지만, 이외에 그라운드 환경 등이 정말 좋다”며 활짝 웃었다.

대표팀의 첫 연습경기, 김 감독도 긴장감을

내비쳤다. 그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긴장이 된다. 아무리 경기를 많이 해도 막상 오더를 쓸 땐 다르다.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긴장감을 풀어주는 게 내 역할”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호시노와 해후한 선동열, 뜨거운 취재열기

경기 전 훈련 때는 라쿠텐 호시노 센이치 부회장이 대표팀 덕아웃을 찾아 선동열 투수코치와 해후했다. 호시노 부회장과 선 코치는 과거 주니치에서 감독과 선수로 인연을 맺었다. 라쿠텐 캠프 격려차 방문한 호시노 부회장이 도쿄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 근처에 있는 경기장을 찾은 것이다. 그라운드에 있던 선 코치는 호시노 부회장이 손짓을 하자, 한걸음에 내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선 코치는 “일부러 찾아와주시고 감사하다. 도쿄 라운드에 가면 인사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일본 미디어도 한국대표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경기는 요미우리 중계권을 갖고 있는 스포츠케이비채널에서 생중계됐다. 한국과 일본 미디어는 서로 덕아웃 취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카메라는 한참 동안 대표팀 훈련 영상을 담았다. 플레이볼 직전, 요미우리의 다카하시 요시노부 감독이 팬들 앞에 직접 서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는 이색적인 팬서비스도 있었다.

●대 대표팀 사카모토·고바야시, 나란히 1안타

일본대표팀의 일원이자, 현재 요미우리의 최고 스타인 유격수 사카모토 하야토가 등장할 때 가장 많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요미우리엔 사카모토 외에도 포수 고바야시 세이지, 투수 스가노 토모유키가 대표팀의 일원이다. 사카모토는 1회 첫 타석에서 대표팀 선발투수 장원준에게 우익수 뜯공으로 물러났고, 3회 1사 1루선 장시환을 상대로 유격수 앞 병살타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6회 1사 2:3루 찬스에서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고바야시는 첫 타석에서 장원준에게 삼진을 당했으나, 6회에 선 투수자로 나서 차우찬을 상대로 깔끔한 좌전안타를 뽑아 추가점의 물꼬를 텄다. 7회말 2사 2루서 이대호가 대타로 등장하자, 일본 팬들도 이대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다. 2015년까지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한 만큼, 익숙한 홈런타자의 등장에 박수를 보냈다. 대표팀 캠프에 합류한 지 3일째인 이대호는 토네 치아키에게 3구 삼진으로 물러났다.

오키나와(일본) | 이명도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